

다니엘의 책 - 제185번

체현된 신성: 베드로의 심오한 신앙 고백과 그 함의

Jeff Pippenger

2024-04-15

베드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대답을 제시하면서 예수가 기름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13-19.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14만 4천이 이해해야 할 본질적인 진리를 제시하셨다. 성령께서는 파니움, 곧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하셨다. 파니움은 용을 숭배하는 데 있어 가장 신성한 신전 터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대표하고, 마지막 때의 세상은 유엔이며, 유엔은 용의 지상 대표이기 때문이다. "지옥의 문"은 그리스의 염소 신 판의 신전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 신전은 파니움의 샘이 있는 동굴 앞에 세워졌다. 파니움의 샘은 요단강의 수원이 되었고, 요단강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르단'이라는 이름은 '내려가는 자'를 뜻하며, 이 강은 이스라엘 북부의 산악 지대에서 시작된다. 주된 수원은 헤르몬 산맥의 최고봉인 헤르몬 산의 샘들로, 그곳에는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샘도 있다. '헤르몬'은 '거룩함'을, '요르단'은 '내려가다'를 의미한다. 요르단 강은 헤르몬 산의 고지대에서 발원하여 요르단 지구대를 따라 내려가 마침내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에 이른다.

요단강에 물을 공급하는 물, 판의 신전에서 발원하여 지구상 가장 낮은 지점에 이르는 그 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높은 거룩한 산을 떠나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죽은 바다'로 내려오신 강하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강하는 그가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음을 또한 나타낸다. 이는 그가 하늘에서 십자가로 가는 여정이 '지옥의 문들'에서 발원한 물에 의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일 뿐만 아니라, 바다보다 아홉 배나 더 짠, 지구에서 가장 짠 물이다. 사해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많은 사람들과의 언약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네 소제의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칠지니라. 네 소제에서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라. 네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레위기 2:3.

헤르몬 산의 샘에서 흘러 내려오는 요르단 강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곳은 티베리우스 호수와 키네렛 호수로도 알려져 있다. 갈릴리는 '경첩' 또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로마 통치자의 이름이며, 호수의 모양 때문에 그 호수는 '키네렛'이라 불리는데, 이는 '하프' 또는 '리라'를 뜻한다. 인류의 전환점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하던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였고, 하늘의 모든 하프가 침묵했다. 그리스 신 판의 신전인 "지옥의 문"과 관련된 요르단 강의 지리적 증거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증언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 스스로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을 때 일어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음을 판의 샘에서 흘러나와 요단강을 이루는 물이 상징한다. 판의 샘을 공급한 것은 헬몬 산에 내린 이슬과 비와 눈이었고, 헬몬은 '거룩한' 산,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부은 귀한 기름과 같으니,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가는도다; 헬몬의 이슬 같고,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시편 133:1-3.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 "보배로운 기름"은 그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때 사용된 기름이었다.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 거룩하게 되리라. 출애굽기 29:21.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치로 높이 들려질 하나로 연합된 제사장단으로 기름부음 받게 될 십사만 사천의 고백도 대표했다. 아론에게 부여했던 그 "기름"은 헤르몬 산의 이슬과도 같았고, 또한 시온의 산들의 이슬과도 같았다. 그 "기름"과 "이슬"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나타내는 메시지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여호와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신명기 32:1-3.

"이슬"은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교리"이며, 또한 마지막 날들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십사만 사천을 하나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의 기름"이다. 그 교리는 비처럼 내리고, "공표"되기 때문에 이슬처럼 맺힌다. 하늘과 땅이 그의 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한밤중의 외침과 큰 외침의 기별을 선포하는 표징인 통일된 제사장단을 통해 그것이 "공표"되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고, 시온에게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자여.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여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때 그들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으로 터져 나오고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께서 모든 민족의 눈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끝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2:7-10.

베드로로 대표되는 말세의 파수꾼들은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며, 서로 의견이 일치하므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일어난다. “다시 데려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되돌리다”를 뜻한다. 주께서 시온을 되돌리신다는 것은, 흩어짐으로 상징되듯 시온이 포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 포로됨이 그칠 때 그것이 되돌려진다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에게 나의 선한 말씀을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그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에 나를 찾고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서 발견될 것이며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예레미야 29:10-14.

모든 선지자들은 말세를 다루고 있으며, 말세에 그의 백성은 예언의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되돌려질 포로 상태에 놓여 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30:1-3.

사흘 반 동안 잠든 후, 나사로가 나흘 동안 잠들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스물한 날 동안 애통했던 것처럼, 미가엘은 그의 말세의 백성인 두 증인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며, 전 세계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 메시지는 헤르몬 산(거룩한 산)의 ‘이슬’로서 판의 샘을 적시고, 그 샘은 이어 요단강으로 흘러든다. 그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기름부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표징한 예수의 기름부음을 상징하며, 이를 베드로가 알아보았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그는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음부의 문’의 물이 상징하듯,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로 제시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것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 받은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라는 그 진리가,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싸움의 초점이 될 진리라고 지목하신 바로 그것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이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음부의 문’이 이 진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2001년 9월 11일에, 예수께서 세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시작되었고,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의 마지막 때 백성을 죽일 한 실망이 있을 것이며, 그분이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들의 포로됨을 돌이키실 때까지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부활의 과정에는 그분의 백성을 하나로 연합시켜 기치처럼 높이 들려지는 강한 군대로 만드는 일이 포함된다. 거리에서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활, 정결케 함, 연합, 높이 들림의 사역은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와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도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13절부터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파니움으로 데려오셨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이 영원히 찍힌다.

오직 우리가 이 사실들의 심오함을 이해할 때에만 가이사랴 빌립보의 증언에 담긴 진리의 계시를 알아볼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시몬 바요나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데, 이는 최근 글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그 구절에 세워진 수학적 계시는 예수를 '놀라운 계산자'로 드러낸다. 베드로가 십사만 사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수학적 기호인 "phi"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phi'와 관련된 수학을 논하기에 앞서, 'phi'가 'Panium'이라 불린 성읍의 두 이름 가운데 둘째인 'Philippi'라는 명칭의 일부임을 주목해야 한다. 십팔절은 예수께서 Peter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후에 영어로 번역되었음을 지적한다. 이 세 단계는 그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리킨다. 그 단어에 번호가 매겨진 위치값들의 곱이라는 수학적 체계를 적용할 때, 'Peter'라는 이름이 십사만 사천에 상응함이 드러나며, 이로써 예수께서 '기묘하신 계수자'이심이 강조된다. 바로 그 동일한 절, 곧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절에서, '기묘하신 계수자'께서는 번역 과정을 주관하셔서, 열여섯 장 십팔 절에 나타난 진리가 'phi'라는 수학적 기호를 표상하도록 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그분의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리 위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수학, 문법, 그리고 사람의 일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위에도 세워져 있다.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유업을 얻었으니, 곧 자기 뜻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11.

Phi는 흔히 그리스 문자 ϕ (파이)로 표기되는, 약 1.618033988749895에 해당하는 수학적 상수이다. 이 수는 황금비 또는 신성비로 알려져 있다. 이는 '무리수'로, 간단한 분수로 표현할 수 없으며 소수 표현이 반복 없이 무한히 이어진다.

황금비는 주목할 만한 성질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수학, 예술, 건축, 자연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직사각형, 오각형, 십이면체와 같은 기하학적 도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긴 변을 짧은 변으로 나눈 비율이 ϕ 와 같다.

예술과 건축에서 황금비는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비례를 만들어낸다고 여겨진다. 황금비는 고대 문명에서 르네상스,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역사 전반에 걸쳐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구도, 건축물, 예술 작품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수학에서 황금비는 피보나치 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수학적 방정식과 수열에 나타나며,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각 항이 앞의 두 항의 합이다. 피보나치 수열의 항이 커질수록 연속하는 두 항의 비는 phi에 수렴한다.

16장 18절에서 우리는 수학적 phi(1.618...)를 발견한다. 자기 뜻의 계획대로 만물을 일하시는 하나님으신 예수께서는, 말세에 그의 교회가 음부의 문들과 맞서 싸울 전장을 지목하는 예언적 지리 속에, 자신이 '팔모니', 곧 '기묘한 수' 또는 '비밀들을 세시는 이'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두시기로 정하셨다. 그 예언적 전장에서 그는 숫자들을 주관하시는 권능으로, '비둘기의 메시지를 듣는 자'인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베드로'를 통해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심으로써, 십사만 사천을 자신의 말세 언약 백성으로 표시하셨다.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하신 "반석"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의 기초 반석, 곧 기초이자 머릿돌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참된 기초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세례, 곧 시몬이 비둘기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때로부터 사해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1,260일 동안 매일 두 번, 아침과 저녁의 제사가 있었다. 다만 그 1,260일의 마지막 날에는 그날 저녁 제사가 제사장의 손에서 벗어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제2,520번째 제물로 죽으셨다.

온통 공포와 혼란이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막 죽이려 하지만, 맥이 풀린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어린 양은 달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서 예표가 그 실체와 만났다. 위대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롭고 산 길이 예비되었다. 죄 많고 슬퍼하는 인류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시대의 소망, 757.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실 그 "반석"은 건축자들이 버린 주춧돌이며, 그 수는 "이천오백이십"이다. 짧은 한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만물의 주인으로 나타내시며, 그렇게 하실 때 그는 다니엘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서서 말씀하고 계신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감추어진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라.' 신명기 29:29.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는 결코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을 찾아낼 수 없다. 그의 창조의 능력은 그의 존재만큼이나 불가해하다."

하나님께서서는 과학과 예술 두 분야 모두에서 세상 위에 넘치는 빛이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소위 과학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순전히 인간적 관점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룰 때, 그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의 이론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힌 바를 넘어 추측하는 것이 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분의 창조하신 것들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해 보려는 사람들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미지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다. 가장 뛰어난 지성도 연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과학과 계시의 관계를 밝히려는 노력 속에서 혼란에 빠진다. 창조주와 그분의 하신 일들이 그들의 이해를 훨씬 넘어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역사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긴다. 구약과 신약 기록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닳을 잃은 그들은 불신앙의 암초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떠밀리게 된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단순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사람들의 과학적 관념으로 시험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지식은 신뢰할 만한 길잡이가 아니다. 트집을 잡기 위해 성경을 읽는 회의론자들은, 과학이나 계시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해 그 둘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아래 기록했으며, 올바른 지질학 이론은 그의 진술과 조화될 수 없는 발견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에서든 계시에서든 모든 진리는 그 모든 나타남에 있어 스스로와 일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박식한 학자들조차 결코 답할 수 없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흔한 것들 가운데서조차 유한한 인간의 지성이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분이 행하신 것과 행하실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친히 세우신 법칙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그분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까지도 모두 설명하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지도 그분의 능력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이나 그 법칙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무한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칙'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관하여 인간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리고 창조주께서 친히 세우신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어 역사하시면서도 유한한 존재들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영역이 얼마나 광대한가!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곧 특정한 속성이 물질에 부여되고 나면 물질이 그 고유한 내재적 에너지로 작용하도록 내버려진다고—또 자연의 작용은 고정된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진행되며 하나님 자신도 그것에 간섭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는 거짓 과학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자연은 창조주의 종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폐하시거나 그것을 거슬러 일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법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연은 자신의 법칙 안에서 그리고 그 법칙을 통해 역사하시는 지성, 임재, 활동하는 에너지에 대해 증언한다. 자연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17.

레위 사람들은 느헤미야에 기록된 그들의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주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모든 군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 또 주께서 그것들을 다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6. 이 세상에 관한 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료되었다. 이는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이라' 히브리서 4:3.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그가 창조하신 대상들을 붙들어 유지하시는 일에 작용하고 있다. 일단 가동되도록 설정된 기계 장치가 스스로의 고유한 에너지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맥박이 뛰고 숨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분의 두루 미치는 돌보심이 매 숨결마다, 심장의 매 박동마다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7:28. 해마다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고 태양 주위를 도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도 고유한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하늘을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는 동안 그 자리에서 붙들고 계신다. 그는 '그들의 군대를 수효대로 이끌어 내시고, 그가 권능이 크시므로 그들을 모두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강하므로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도다.' 이사야 40:26. 식물이 무성하고 잎이 돋고 꽃이 피는 것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그는 '산들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시편 147:8), 그로 말미암아 골짜기들이 기름지게 된다. '숲의 모든 짐승들은 ...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찾으며', 가장 작은 곤충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이 날마다 그의 섭리하신 돌보심에 의존한다.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말대로, '이 모든 것이 주를 바라보오니.... 주께서 주시는 것을 그들이 모으며,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시편 104:20, 21, 27, 28. 그의 말씀은 만물을 다스리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신다. '그는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도다.' 시편 147:16.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실 때에 하늘에 많은 물이 있으며, 땅끝에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느니라.' 예레미야 10:13.

"하나님은 만물의 기초이시다. 모든 참된 과학은 그의 하신 일들과 조화를 이루며, 모든 참된 교육은 그의 통치에 대한 순종으로 이끈다. 과학은 우리의 시야에 새로운 경이로움을 펼쳐 보이고, 높이 비상하여 새로운 깊이를 탐구하지만, 그 연구에서 신성한 계시와 상충하는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무지는 과학을 내세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지지하려 할 수 있으나,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에게 빛을 비춘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이성적인 신뢰를 갖게 된다." 족장과 선지자, 113-115.